

4~5» 흡연권 VS 혐연권



8» 경희교회 70회 정기공연



9월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기업체 채용설명회(면담) 및 특강
2. 취업진로지도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기간 : 2016. 09. 19.(월)~2016. 09. 23.(금)



2016 세계평화주간

19일 청운관 앞에서 후마니타스 세계평화주간 개회식이 열렸다. 개회식에는 후마니타스칼리지 유정완 학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종필 미래문명원장, 후마니타스칼리지 김희찬 교수 및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진=양윤주 기자)

취업률 51.2%, 주요 대학 대비 저조 식품영양 26.5→62.5%로 도약

2016 우리학교 취업률

기호웅 기자 kihodori2@khu.ac.kr

지난 8월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4년제 일반대학 180개교의 취업률과 진학률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2016년 우리학교 졸업생 5,439명 중 2,330명이 취업해 51.2%의 취업률을, 560명이 진학해 10.3% 진학률을 기록했다.

우리학교의 취업률은 2014년 50.6%, 2015년 50.9%로 지난 3년간 0.3%p씩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주요 경쟁대학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를. 서강대(56.8%), 중앙대(58%), 연세대(59.4%), 서울대(60%), 한양대(64.5%), 고려대(66.6%), 성균관대(69.3%)에 비해 모두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단과대학별 취업률은 한의과대학이 82.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학대학(68.3%), 간호과대학(67.4%), 호텔관광대학(64.2%), 공과대학(61.5%)이 뒤를 이었다. 취업률이 낮은 단과대학으로는 음악대학이 7.1%로 가장 낮았으며 미술대학(15.4%), 예술·디자인대학(37.5%), 체육대학(39.2%) 순이었다. 예체능계열 대학들의 약세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체육대학은 전년대

비 44.1%에서 39.2%로 5%p 가까이 크게 하락했다. 반대로 생명과학대학은 전년대비 31.3%에서 43.1%로 11%p 이상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학과별로 약학과가 85.7%로 가장 높았으며 한의학과(82.8%), 간호학과(82.6%), 기계공학과(73.9%), 화학공학과(73.2%) 순이었다. 취업률이 낮았던 학과로는 성악과(5%), 기악과(8.2%), PostModern음악학과(14.7%), 미술학부(15.4%)였으며 골프산업학과가 0%로 가장 낮았다.

학과별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 학과들도 있었다. 높은 취업률 상승을 보인 학과는 약학과가 0%에서 66.7%로 66.7%p 상승했으며, 식품영양학과 26.5% → 62.5%

로 36%p, 수학과 35% → 64.3%로 29.3%p, 아동가족학과 36.4% → 61.9%로 25.5%p, 원예생명공학과 25% → 48%로 23%p 증가해 생활과학대학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전년대비 취업률이 떨어진 학과로는 골프산업학과가 100% → 0%로 크게 하락했으며, 정보디스플레이학과가 87.2%에서 53.5%로 33.7%p, 한국어학과가 87.5% → 59.1%로 28.4%p, 러시아어학과 65.5% → 38.5%로 27.1%p, 스포츠의학과가 57.8% → 31.6%로 26.2%p 감소하여 체육대학과 외국어대학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쳤다.

▶3면으로 이어짐

Newsmaker

맹요셉(호텔경영학 2015) 2016 단장
박정훈(회계세무학 2012) 2013 단장



합창단 'GLEE', 어려움 딛고 도쿄서 해외공연 꿈 이뤄

유정아 기자 yuangel@khu.ac.kr

#. 중앙동아리 'GLEE' 합창단은 도쿄에서 열리는 2016 한일축제한마당의 개막식에서 일본 조치대학 마당의 개막식에서 일본 조치대학 합창단과 함께 합동 축하공연을 갖는다. 한일축제한마당은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일본에서는 2009년부터 양국에서 매년 개최된 행사다. 이번 행사에서 'GLEE'는 우리나라 참가팀중 유일한 대학생 팀이다.

한·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한일축제한마당은 한·일 간 우호 증진을 위해 개최되는 최대 규모의 문화·예술 교류축제로, 한·일 양국에서 매년 열리고 있다. 'GLEE'는 우리나라 참가팀 가운데 유일한 대학생 대표팀으로, 일본 조치대학 합창단 '아마테우스'와 개막식에서 합동공연을 맡았다. 'GLEE'는 개막식 합동공연에서 뮤지컬 렌트(RENT)의 삽입곡인 'Seasons of love'를, 오후에 열릴 단독 공연에서는 일본 곡인 'Search for tomorrow'를 포함해 '최진사택 셋째 딸' 등 총 4곡을 공연할 예정이다. 'GLEE'는 현재 일본 조치대학 합창단 '아마테우스'측과 이메일로 연락하며 연습하고 있으며, 공연 전 날에는 조치대학교에서 사전연습과 리허설을 진행할 예정이다.

'GLEE'의 해외공연이 성사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GLEE'는 '2016 한일축제한마당' 측에 국제전화로 참가 의사를 보냈지만 주최 측은 "대학생 팀은 행정처리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거절했다. 하지만 공연 총괄자인 박정훈(회계세무학, 2012) 전 단장은 제안서라도 한번 검토해달라며 행사를 주관한

주일 한국대사관 측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참가를 성사시킬 수 있었다. 그는 "행정처리 능력을 증명하고자 제안서를 꼼꼼히 준비했다"며 "한일 교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한일 대학생동아리 합동공연을 제안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공연참가 경비 마련에서도 어려움은 계속됐다. 주일 한국대사관 측의 일부 지원이 있었지만, 나머지 경비 부담을 덜기 위해 크라우드 펀딩과 기업, 외부 단체들에 제안서를 보내 지원금을 받아야만 했기 때문이다. 박 전 단장은 "과거 일본 무역관련 행사에 참여한 기업 중에서 후원 가능성과 기업 특성을 파악해 후원을 요청할 기업을 물색했다"며, "기업 측에 한일축제한마당의 문화적 파급력을 강조한 점이 후원을 받을 수 있었던 요인"이라 설명했다. 그 결과 현재 롯데백화점을 포함해 3개 기업의 후원이 확정됐고, 추가로 2개 기업이 후원할 예정이다. 외부 단체 후원을 추진한 맹요셉 단장(호텔경영학, 2015)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아마추어 합창단인 '한국남성합창단'에 일본순방연주 프로젝트와 준비 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한 뒤, 동참을 부탁해 후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GLEE'는 이번 후원을 계기로 앞으로도 한국남성합창단과의 교류를 이어갈 계획이다.

맹 단장은 "합창은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음악"이라며 "각기 다른 이들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야 하므로 많은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지만 그만큼 가치있고, 따뜻한 감동을 선사한다"고 말했다. 'GLEE'는 이러한 합창의 매력을 느끼고, 전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공연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 핀터레스트 <https://www.pinterest.com/daehakjubo/>
- 유튜브 '대학주보' https://www.youtube.com/channel/UC8t9_LCfmJ7dxw4THjUR0YQ
- 구글플러스 '경희대 대학주보' <https://plus.google.com/u/0/108802383036836051070/posts>

전문가 칼럼

교육 위기의 본질

이효인(연극영화학과) 교수 >> 7면



흡연권과 혐연권, 권리와 편리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기획 - 학내 흡연 실태 분석

최병현 기자 chbhi1027@khu.ac.kr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으로 공공이용시설의 금연구역 지정이 강화됐다. 이후 정부는 2012년 흡연구역 폐지, 2015년 담배값 인상과 모든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에 이르렀고, 2016년 5월 1일부터는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정했다. 건강한 삶을 지향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

면서 적극적인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바야흐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를 거부할 권리인 '혐연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흡연자는 늘어난 금연구역만큼 충분한 흡연구역이 확보되지 않아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권리인 '흡연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다. 흡연을 둘러싼 문제는 이 두 개의 권리가 부딪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

혐연권과 흡연권이 상충하면 어떠한 권리를 우선해야 할까? 먼저

헌법재판소는 이 둘 모두가 헌법적 근거를 가진 기본권이라 인정한 바 있다. 혐연권과 흡연권 모두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리고 사생활의 자유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시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7조(금연구역의 지정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해당 조문의 위헌 확인을 청구한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

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상위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혐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혐연권과 흡연권이 부딪치면, 생명권과 연결된 혐연권이 보다 상위 기본권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하여 혐연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4-5면으로 이어짐